



SARANG

시론 02

2025년 건축 분야를 돌아보며

답사기 03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 _ 경기도서관·처인휴게소·화담숲 답사기

광주 지역 뉴스 04-05

지난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
광주광역시 건축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파킨슨행복쉼터에 후원금 200만원 전달

전남 지역 뉴스 06-07

전남건축사회, 초록우산에 기부금 400만원 전달
전남건축사회, 전남동부노인보호기관에 생활지원 사업 후원
전남건축사회, 여수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에 후원금 300만원 전달

전북 지역 뉴스 08-09

전주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연탄 5,000장 나눔 봉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건축사회, 치매환자에 '배회감지기' 기탁
전북 군산시 건축문화상 일반 분야 3점, 공공 분야 2점 선정

독자광장 10

책 소개 _ 탈 주택 - 공동체를 설계하는 건축
한 장의 사진 _ NTT Pavilion(Lead Designer Fumiaki Hatakeyama)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11-12

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금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정령치 하늘 전망대'
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동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임실생태누리'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12월호(193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2025년 건축 분야를 돌아보며



문창호 논설위원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대표
mchangho55@gmail.com

- 1978 서울대 건축과 졸업
- 1980 동 대학원 공학석사
- 1989 동 대학원 공학박사
- 1989-1995 순천대학교 건축과 교수
- 1995-2021 군산대학교 건축과 교수
- 2021-현재 군산대학교 건축과 명예교수
- 2008-2010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
- 2009-현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부회장
- 2014-2016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2016-2022 한국건축가협회 전북지회장
- 2024-현재 전북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2013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
- 2003 완석루(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14 난재루(전북건축문화상 우수상)
- 2019 안향재(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21 옥조근정훈장
- 2023 전북예총 하림예술상 본상

2025년 을사년이 저물고 2026년 병오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격변의 해로 기억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AI가 대중화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도 국내외 건축 분야의 이슈를 돌아보고자 한다. 건축 분야와 AI 활용, 프리츠커상 수상, 프랭크 게리의 사망, 홍콩 아파트 화재 등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2026년도 건축경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생각해 본다.

건축 분야와 AI(인공지능) 활용

올해 국제적으로나 우리 사회에서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AI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AI의 폭발적 성장론과 거품론이 공존한다. 그러나 건축 분야에서도 AI 활용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활발하게 확산 중이다. 필자는 자료를 비교 검색하는 수준에서 AI를 이용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인 수준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AI를 이용하여 초기 디자인 이미지와 형태를 생성하여 수많은 디자인 옵션을 탐색하고, 대지 분석, 법규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건물 배치 대안을 생성하고, 각종 시뮬레이션으로 재료 사용을 최소화 하면서 강도를 높이는 구조물을 설계하기도 한다. 시공 분야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건설 현장 자동화에 AI를 활용한다. 이외에도 건축물 유지관리, 도시계획, 건축 소재 연구 등에서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우리 건축사들도 AI 활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다.

2025년 프리츠커상 수상자 리우 지아쿤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인정받는 가장 권위 있는 프리츠커상 2025년 수상자는 중국의 리우 지아쿤(刘家琨, 1956)이다. 그는 2012년 왕슈(王澐, 1963)에 이어 이 상을 받은 두 번째 중국 건축가로서, 중국 청두(成都)를 기반으로 활동해 왔다. 그의 건축은 왕슈와는 결을 달리한다.

그의 건축은 기념비적인 상징성보다 지역성, 역사성, 일상의 건축, 지속가능성, 공동체 중심 성격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즉 프리츠커상 선정위원회는 그의 건축이 "고전적인 중국 건축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생각하고, 공동체와 장소의 기억을 존중하는 건축"이라고 수상 이유로 들었다. 그는 종종 지역 자재와 불완전성의 미학을 활용하기도 한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 이후, 지진 잔해를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여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수상은 화려한 조형미나 거대한 규모를 다룬 건축가보다는 도시의 일상성, 지역의 소규모 건축에 대하여 적은 예산으로 열악한 조건에서도 좋은 건축을 실현한 건축가가 제대로 평가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의 건축관은 "건축은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덜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우리도 이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사망

독창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프랭크 게리가 2025년 12월 5일 향년 96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Guggenheim Museum Bilbao, Walt Disney Concert Hall LA, Fondation Louis Vuitton Paris 등의 기념비적인 비정형 건축물을 설계하며 현대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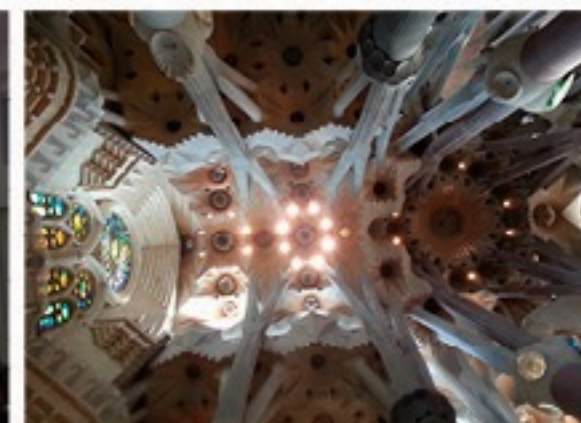
2010년 HealthCareDesign 콘퍼런스_라스베이거스에 참가하여, 그가 설계한 뇌질환 연구센터(Cleveland Clinic Lou Ruvo Center for Brain Health)를 답사할 기회가 있었다. 게리는 천박한(?) 건축이 난무하는 라스베이거스에 건축설계를 거부해 왔는데, 건축주의 여러 차례 간곡한 부탁을 받고 조건부로 승낙하였다. 게리는 오랜 친구의 지인이 Huntington병에 희생된 뇌질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조건은 신축시설 연구 목록에 이 질병을

추가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연구센터는 게리의 작품으로 독특한 건축 형태이기에 명성을 얻어 기금모금이 활성화되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연구센터장의 자부심이 넘치는 설명이 있었다. 건축설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견고한 엔지니어링과 완벽한 시공이 뒷받침되었지만, 이러한 명품건축은 윤리적 측면의 스토리텔링으로 인하여 더욱 빛난다고 생각한다.



Cleveland Clinic 연구센터 내부



La Sagrada Familia 내부 천장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

한편, 건축의 안전과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으로, 2025년 11월 26일 홍콩 Wang Fuk Court 아파트 단지(8개 동, 31층 이상 고층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서 대형 화재로 인하여 사망자 160여명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리모델링을 위해 설치된 대나무 비계 + 녹색 안전망 + 발포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 재료가 원인이 되었고, 이 재료들이 불씨를 키워 단지 전체로 빠르게 번졌다. 이 단지는 밀집된 고층의 주거단지이며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이민 노동자 등으로 취약 계층이었고, 또한 피난 경로 확보가 어려운 점도 문제를 더 키웠다.

우리나라도 올해만 해도 광주 상무지구 오피스텔 화재를 비롯하여 많은 화재가 일어나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도 일상화된 고층 아파트의 화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내외장에 불연 재료 사용이나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 등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화재진압이 가능한 건물의 높이가 더 중요하다. 소방 사다리차가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의 한계는 70m 정도(23층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건축물로의 접근성 확보, 충분한 도로 폭 확보, 건물 간의 거리 등이 적절하게 해결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건축의 상업성보다 거주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높이는 7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불가피하게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완벽한 자기완결적인 방재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2025년 건축 분야를 돌아보면, 건축에서 AI 활용의 확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며, 프리츠커상에서 기념비적인 것보다는 평범하나 조금은 편리한 건축이 중시되는 국제적인 변화가 있고, 한때 비정형 건축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프랭크 게리도 많은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홍콩 밀집된 고층 아파트 화재 원인을 알아보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에 기반한 우리의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최근 기사에서 안토니오 가우디의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La Sagrada Familia) 성당이 착공 후 140년 만에 2026년 완공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2014년 바르셀로나 국제학술회 참석하여 이 건축물의 내외부를 둘러보았다. 특히 신비로운 실내 공간의 감동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듯 명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2026년 건축경기는 전반적으로 2025년보다 다소 안정적이면서도 구조적 전환이 강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은 기존의 신축 중심 성장모델보다는 친환경 및 AI 기반 혁신이 시장을 이끄는 해로 예측되므로, 우리 건축사들은 이러한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 2025년 11월

– 경기도서관·처인휴게소·화담숲 답사기 –

정 열 건축사 / 제이포 건축사사무소 (광주)



아침 7시, 설레는 출발

동호회 가입 후 첫 답사. 11월 15일 토요일 아침 7시, 상무지구 한 주차장에 회원들이 모였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관광버스에서 인사와 웃음이 오갔다. 나는 미리 준비한 경기도서관과 처인휴게소 동영상 자료를 공유하며 인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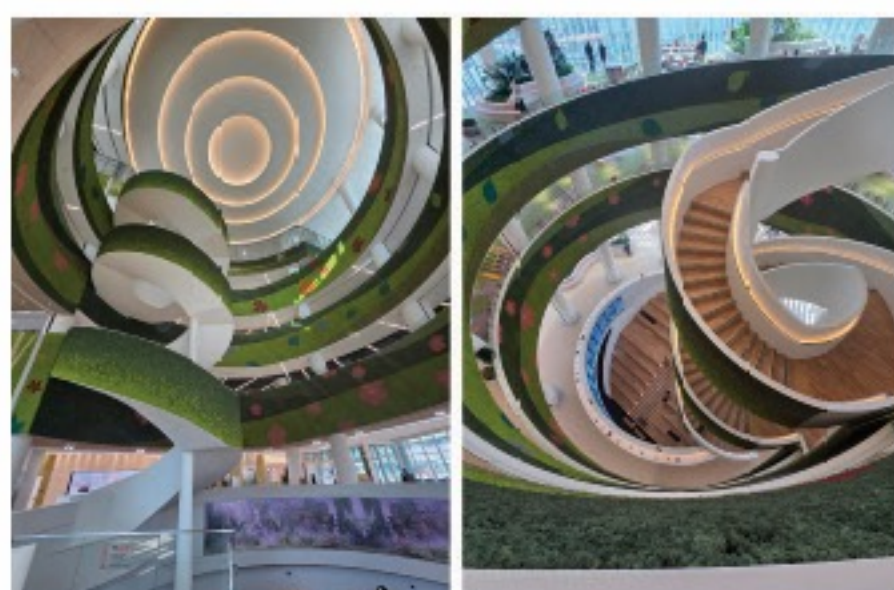
경기도서관 – 국내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

3시간가량 이동하여 경기도서관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해안건축이 설계를 맡아 경기융합타운 내에 조성된 도서관이다. 경기도서관에 오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나선형의 매스 속 내부 오픈 공간일 것이다. 설계의 모티브는 '도서관(Library)'의 어원인 '비블리오테카(bibliothèque,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항아리)'에서 시작되었으며, 독창적인 형태의 솔리드 속 보이드를 갖춘 건축물이 되었다.

내부 나선형 구조는 층간 구분 없었고 각 층의 서고를 연결해 주었다. 또한 경사도를 낮추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를 계산한 결과물을 눈으로 직접 보니 감동에 감동을 더하였다. 회원들과 층별 동선을 따라가며 동선 흐름, 시각적 연결성을 느끼며 관람하였다.



경기도서관의 외관



경기도서관 – 나선형 경사로와 계단

해마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하였으며 설계의 모티브는 달의 시간적 형태 변화를 형태화 하여 (초승달 반달 보름달) 시간에 따라 이용자들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떠 있는 원형 건물은 구조적 안정성과 랜드마크 크성을 동시에 충족한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점심은 명란버터 솔밥.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밥 위에 짭짤한 명란과 녹인 버터가 어우러져 다른 휴게소에서 맛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식사를 금방 한 뒤 한바퀴 둘러 보았다.



처인휴게소 외관 – 세종방향

화담숲 – 자연과 사람

마지막 답사 코스인 화담숲에 도착했다. 자연경관도 사람도 장관이었다!! 인파가 너무 너무 많았다. 우리는 오브제 계단을 통해 입장하였고 간단하게 화담채에서 전시를 보고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모노레일 대신 도보로 전 코스를 돌며 경관을 눈에 담기 시작하였다. 단풍 절정이라 붉고 노란 숲길이 장관이었다. 나는 도저히 사진에 담을 수 없는 빛과 분위기에 답사는 제쳐두고 하염없이 걸었다.

산책로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빨리 가는 길을 만들어 원활한 관람 동선을 제공하였다. 또한 곳곳에 여러 테마 정원을 두어(이끼 정원, 소나무 숲, 계절별 꽃길 등) 가지각색의 분위기와 색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 생태 환경 복원과 보호를 위해 LG가 오랜 시간 동안 가꾼 이 수목원을 통해 한없이 건축이 자연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화담숲 – 가족 및 연인과 함께 가고픈 가지각색의 테마

처인휴게소 – 상·하행 공중만남 휴게소

도서관 관람을 뒤로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 해결 겸 처인휴게소에 들렀다. 이곳은 한국에서 세 번째 상공형 휴게소(내린천휴게소, 시흥하늘휴게소, 처인휴게소)로 고속도로 본선 한가운데 휴게소가 위치하여 상·하행 모두 하나의 공간을 휴게소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귀환 그리고 기대

아쉽고도 힘겨운 발걸음으로 화담숲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시 광주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에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청주의 한 보리밥집에서 푸짐한 식사를 하고 버스에 타니 어느새 광주에 도착하였다. 2025년도 마지막 답사는 간식부터 식사까지, 건축부터 자연까지 알찬 하루였다. 벌써 다음 답사가 기대된다.

타 금융기관 대환우대

광주건축사신탁 담보 및 신용대출

법인/개인사업자
최대 80%
(감정평가액 기준)
담보대출금리

◆ 최저 4.4%~5.0%(담보 기준)
• 우대금리 적용 시 인하 가능

개인
최대 70%
(DSR 50% 기준)
연금대출금리

◆ 최저 4.6% 적용(연금관리회원적용)

신용대출
1억5천만 한도
(소득금액 100% 기준)
신용대출금리

◆ 전략등급 적용(1등급~7등급)
• 소득금액 기준 이내 적용

광주건축사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무등산원효사주차장화장실

김시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주
광주 서구 상무대로 758, 2층 202호 /
Tel. 062-372-1367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09-8번지 일원 / 대지면적 : 659㎡ / 건축면적 : 109.20㎡ / 연면적 : 97.86㎡ / 건폐율 : 16.57%
용적률 : 14.85%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 구조 : 한식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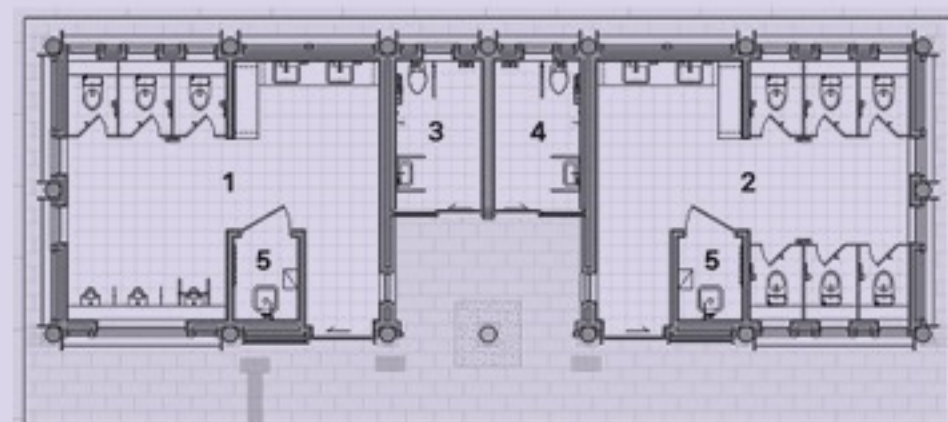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자연 생태계보전을 최우선으로 탄소흡수원 확대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전통 한식 목구조 형식의 친환경 건축물인 원효사주차장화장실을 신축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통해 우리 지역을 방문하시는 탐방객에게 자연과 건축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원효사주차장화장실은 '아름다운 무등산의 자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나무, 돌, 흙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슬로건과 함께 탄소중립과 철학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남자화장실 2 여자화장실 3 남자장애인화장실 4 여자장애인화장실 5 창고



평면도

지난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재난안전위원회 안천수 위원장 긴급히 현장 참석...



지난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의 2층 옥상에서 콘크리트타설 중 붕괴되어 지하층까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과 광주건축사회 재난안전위원회

안천수 위원장이 긴급히 참석해 상황을 살폈다. 강필서 회장과 안천수 위원장은 현장의 붕괴된 철골 구조물과 파손된 자재들을 면밀히 조사하며 사고 규모와 인명 피해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했다. 특히 전문가의 시각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발생하는 하중을 견디지 못한 구조적 결함이나 지지대 설치의 적정성 등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이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재난안전위원회 안천수 위원장은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안전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강필서 회장은 이번 사고가 지역 대표 공공 건축물 현장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향후 건축사회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22일 재난안전위원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건축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인구감소, 도시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논의...



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김기준 회장,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조창근 회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건축사, 건설·설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1부 발제는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대표건축사가 맡아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도시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건축사는 "광주가 호남 거점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분절된 행정·정책을 통합하는 도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발제에서는 손승관 동신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공공건축·총괄건축가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 교수는 "공공건축은 도시 품격을 높이는 핵심수단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책과 행정이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도시계획·경관·건축을 사전 통합협약하는 시스템 구축과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광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자산"이라며 "도시플랫폼 구축, 공공건축 제도개선, 청년·고령친화 도시전략 등을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정책으로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광주가 직면한 인구감소, 청년유출, 도시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역 건축전문가들이 직접 해법을 제안한 자리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직속 호남발전특별위원회(수석부위원장 이병훈)가 주최하고, 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김종원)가 주관한 '광주광역시 건축분야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달 14일 광주 북구 역전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 파킨슨행복쉼터에 후원금 200만원 전달 지역사회 소외 이웃 위한 나눔 실천...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는 지난달 20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사)파킨슨 행복쉼터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영문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장과 정보경 파킨슨 행복쉼터 이사장을 비롯해 안길전, 김선영, 권은지, 김대관, 김민호, 김은미, 김정훈, 장지숙, 최규선 건축사 등이 참석했다.

이영문 회장은 “파킨슨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보경 이사장은 “파킨슨 환우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우들의 행복한 쉼터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 답사동호회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국립목포대학교 RISE 사업단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지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건축 분야의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와 국립목포대학교 RISE 사업단(단장 송하철)은 지역 건축 분야의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해 정명환, 박상구 부회장과 목포대학교 RISE 사업단 송하철 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축 분야 산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교류 △산학공동연구 및 전문기술인력 공동양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 교육 지원 △산업·기술 관련 정보 상호제공 등 산학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함께 건축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대학교 RISE 사업단 송하철 단장도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축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광산구청 모두의쉼터 개관특별초대전 행사 개최 내달 26일까지 유화, 수채화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여...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회장 정인순)은 지난 8일 광산구청 1층 모두의쉼터 개관특별초대전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전상희 광산구 도시건축국 국장, 이남준 광산구 건축과장, 미술동호회 회원, 광산구청 관계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지역 건축사들이 전문 분야인 건축을 넘어 예술적 감각과 통찰을 유화, 수채화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축하사에서 “모두의 쉼터와 시민광장을 조성한 이후 다양한 모임과 문화행사 시도가 활발해졌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변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도 “미술동호회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보낸 다며,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청 1층 ‘모두의 쉼터’는 시민들의 만남과 휴식, 문화활동이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시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미주) 기획초대전 개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전시...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에서 주최한 제20회 2025 전국공모전 및 초대작가전에 김시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미주)가 ‘間, 空間(간, 공간)’ 건축 전시를 개최하고 자연과 일상을 잇는 ‘간(間)의 건축’을 선보였다. 전시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인간, 환경, 관계 사이의 ‘사이’를 의미하는 ‘間’에 주목하며, 건축을 단순히 구조물이 아닌 모든 관계를 담는 그릇으로 해석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국립공원 곳곳에 자리한 공중화장실을 작은 파빌리온으로 바라보며, 자연과 일상 사이에 놓인 그 사이의 감각을 건축으로 선보였다.

김시에 건축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건축은 결국 사람과 삶,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라며, “앞으로도 ‘사이’의 공간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건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인채·정명철 건축사, 2025년 범죄예방유공표창 수상

청소년 범죄 예방 상담 및 멘토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인정받아...



(사진 = 좌 / 정인채 건축사, 우 / 정명철 건축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 소속 정인채·정명철 위원이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두 위원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비행청소년 상담과 멘토링, 범죄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힘써왔다.

정인채·정명철 위원은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지역 범죄예방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5명 (2025. 12. 12. 기준)

• 전입

- 김명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기란 / 광주 동구 용산3길 12, 1층
- 이미란 건축사 / 더엠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용산3길 12, 1층

• 퇴회

- 김보현 건축사 / 에이스 건축사사무소

• 결혼

- 주정호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터 / 아들 결혼 - 2025년 12월 20일(토)

• 부고

- 문인호 건축사 / (주)승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5년 12월 2일(화)
- 강기석 건축사 / 해송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5년 12월 14일(일)

광양시 마동 (주)새마 본사 건립공사

김건용 건축사 / 정민 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시 재철로 1330
Tel. 010-9788-1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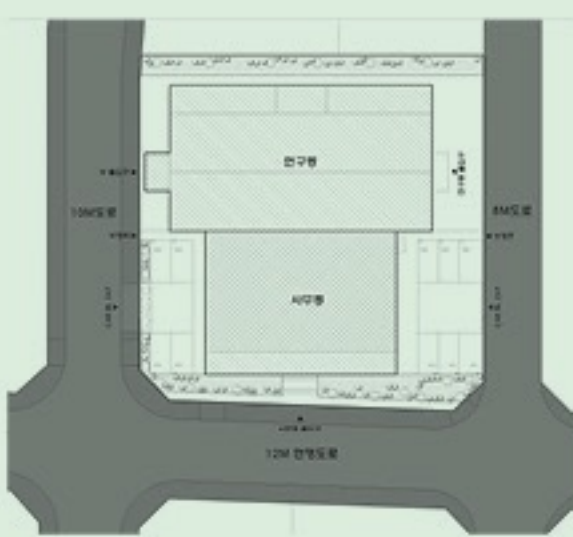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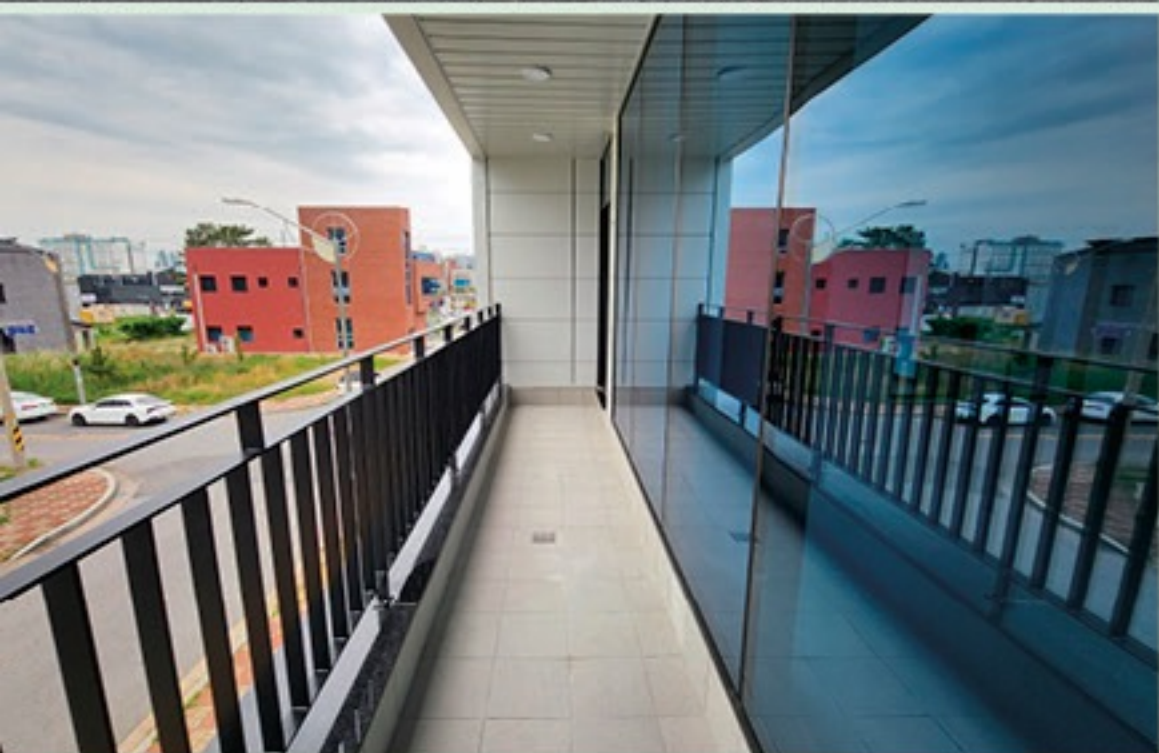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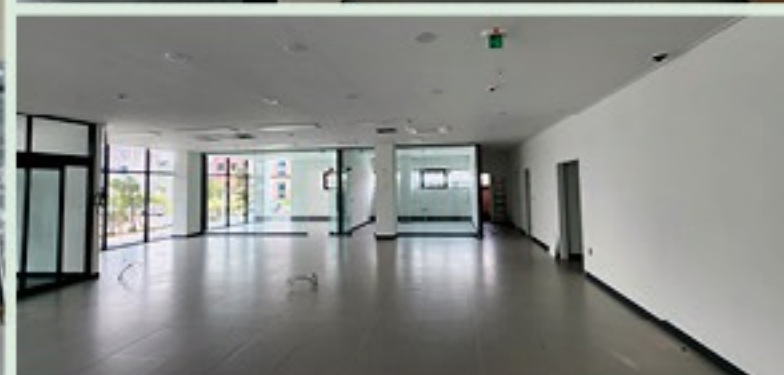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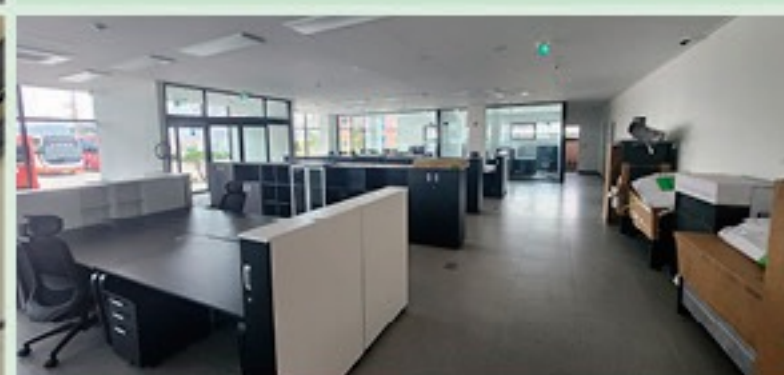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45-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701.2㎡ / 건축면적 : 950.76㎡ / 연면적 : 1,274.58㎡ / 건폐율 : 55.89%
용적률 : 74.92%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주요마감 : 준불연 메탈패널, 준불연 징크패널

이 건축물은 (주)새마의 사무소와 연구를 위한 개인 건축물이나 일상 속 열린 플랫폼(Open Daily Platform)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해 단순한 사무 공간이나 상업시설을 넘어, 사람들이 머물고, 연결되고, 다시 나아가는 도시 속 작은 거점으로 의도되었다.

아침에는 출근하는 이들이 지나가며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사무 및 연구소 직원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빛이 밖으로 흘러나와 또 다른 도시 풍경을 만들도록 설계하였으며, 2층 발코니는 숙소 이용자의 쉼터, 그리고 건물의 상징적 요소다. 이 공간은 단순한 외부 테라스가 아니라 도시를 건축적으로 바라보는 프레임이며, 이용자에게 시각적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제공한다.

건물 외벽의 명확한 대비는 기능적 분리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한 삶의 패턴을 하나의 건축안에 담는 구조적 언어로 표현된다.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사용자, 목적, 동선이 있지만, 이 건축물은 그들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전남건축사회, 초록우산에 기부금 400만원 전달

남도아이사랑 가족돌봄 아동 지원...



전남건축사회(회장 이경일)가 지난달 3일 오전 11시에 전라남도 건축사회에서 남도아이사랑 가족돌봄 아동 지원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

장과 최수용 부회장, 박재봉 목포지역회장, 정민선 무안지역회장, 초록우산 전남본부의 김유성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남건축사회, 전남동부노인보호기관에 생활지원 사업 후원

관내 취약계층 이불세트 20개 지원...



전남건축사회는 지난달 12일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5년 취약 학대피해노인 생활지원 사업'을 위해 300만원을 후원했다.

이날 기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관내

취약계층 20여 가구를 선정해 겨울 이불세트 20개를 지원한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추운 겨울 힘든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박수정 관장은 "전라남도건축사회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취약계층 학대피해노인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건축사회, 여수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에 후원금 300만원 전달

지난달 12일 여수시청 복지교육국장실에서 전달식 가져...



전라남도건축사회가 지난달 12일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여수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여수시청 복지교육국장실에서 열렸으며 전라남

도건축사회 이경일 회장, 배종수 부회장, 고철주 여수지역건축사회회장 등 회원 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의 원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학대피해로 보호 중인 아동들의 심리 안정과 회복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경일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위기아동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전라남도건축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전남 지역 460여명의 건축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희망나눔캠페인', '가족돌봄아동 지원', '인재육성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남 무안군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선정...



(사진 = 전남 무안군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전남 무안군은 지난 8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서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무안품경'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무안군 3읍 6면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건물과 외부공간의 각 요소로 치환해 지역성과 정체성을 품어내는 무

안군 청사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본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0,840.39㎡ 규모로 지형의 흐름과 마을의 결을 따라 3품(品)의 질서가 배치되고, 그 사이에 무안의 바람과 하늘, 숲의 결이 담겨있는 여섯 뜰(庭)이 놓여있는 3품6정(三品六庭)의 배치계획으로 조성했다.

또한 청사의 주요 기능은 품(品)의 형태를 가지는 3개의 동으로 구체화되고 분절된 사이 공간으로 관통되는 축을 따라 군민과 행정,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3개의 동, 3개의 기능으로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구현했다.

조수정 회계과장은 "신청사는 전남의 수도로서 서남권 대표 도시로의 기능과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행정문화공간으로 자리하는 신청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 전남건축사회 송년문화제' 개최

회원 간 교류 활성화 및 건축 문화 계기 마련...

전남 건축인들의 상호 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2025 전남건축사회 송년문화제'가 오는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목포 신안비치호텔 비발디홀 2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개회 행사, 기념식, 축하 공연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되며, 회원들을 위한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회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회원들이 함께 모여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는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2025 전남건축사회 송년문화제'를 개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우리 건축사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62명 (2025. 12. 12. 기준)

•입회

- 장윤정 건축사 / 지형지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6, 4층 5호
- 송대원 건축사 / (주)연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성군 남면 나도산단3로 44, 4층 4020호

•변경(소재지)

- 유장기 건축사 / 에이원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로 68, 5층

•변경(사무소명)

- 이영수 건축사 / 지엘이엔지 건축사사무소(주)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6-1, 4층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반석기조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펄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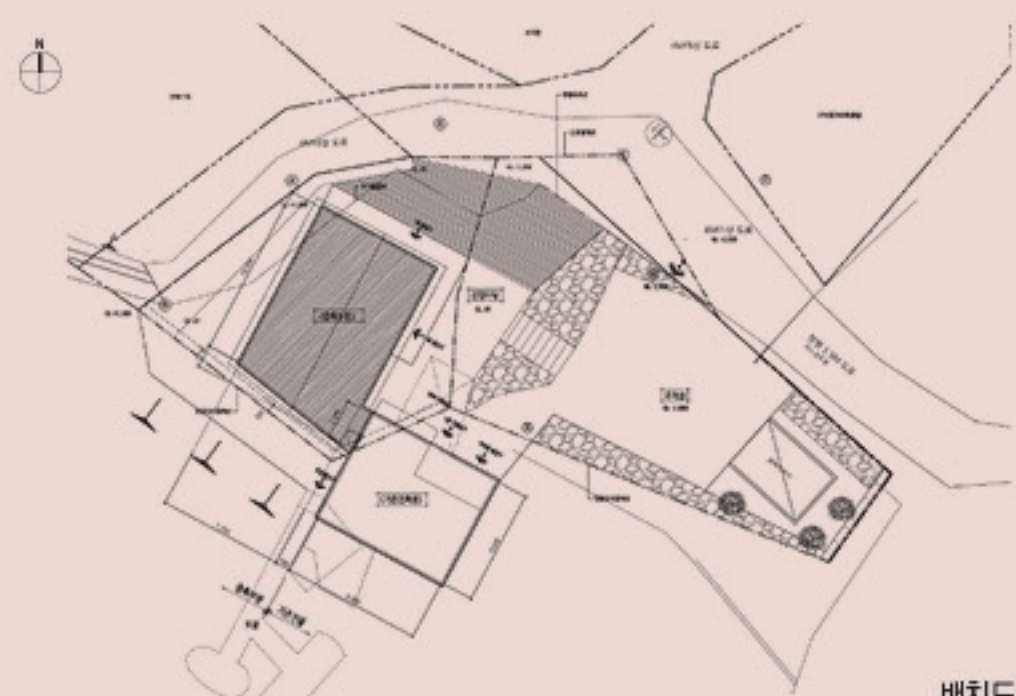
카페 디디애

김성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로운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56, 2층 201호
Tel. 063-642-0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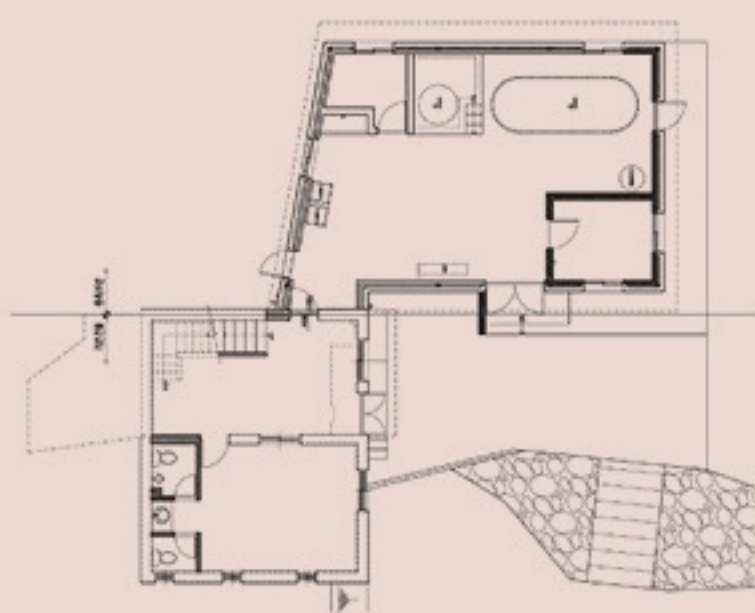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77 / 대지면적: 506㎡ / 건축면적: 246.74㎡ / 연면적: 357.22㎡
규모: 지하1층, 지상 2층 /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 구조: 철조적조 / 주요 마감: 점토벽돌

“보존, 복원,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 재생의 사명”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재활용을 넘어, 역사·문화적 가치의 계승,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의 장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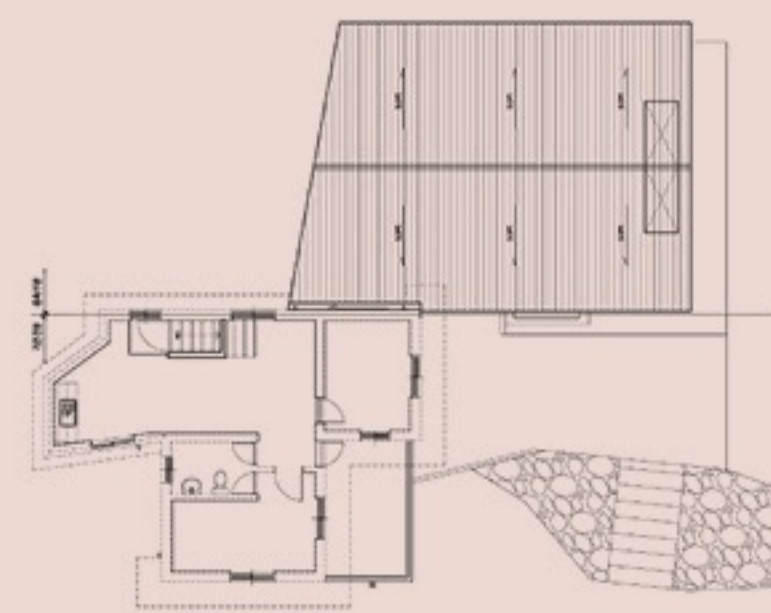
역사와 기억의 계승, 환경적 지속가능성, 도시와 지역의 활력 회복, 문화적 창조와 재해석으로 대한민국 치즈가 시작된 임실치즈 공장을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성을 구현하는 건축물의 사명에 중점을 두었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 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철근 대비 인정강도 2배
ESG경영우수선 (저탄소 제품)
건물유지보수 비용 절감
철근콘크리트의 취약점 해소
내부식성, 비자성, 내화학적,
부도체(열차단성)

시공사

중대재해 ZERO (낙하, 감전)
철근 대비 1/4 중량(경량성)
화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철근대비 시공 생산성 176%
물류비 절감
길이 별 납품 가능(3m~15m)

건축사

조달청 혁신/우수제품 지정
친환경 자재 (환경성적표지인증)
녹색기술 녹색자재 인증
시설물 생애주기비용(LCC)절감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
근골격 질환예방(경량화)
작업 피로도 감소(열차단성)
감전 사고 예방(비전도성)
고용효과 증대(여성, 노년)

설계(VE) 및 경제성 검토 문의 대환영!!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형철근 대비 예산 절감)
- 한국도로공사 GFRP보강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국방부 "GFRP보강근" 신기술 우수제품 활용통보
- 공장, 창고, 근생주택, 축사, 수리시설(농어촌공사), 조선소(항만) 특화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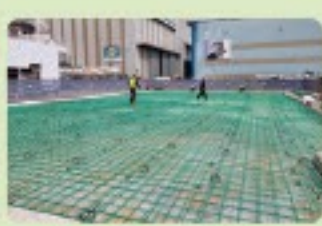
목포시 공영주차장



철골구조물(공장)



근생주택



조선소노반 기초

KECO 공식판매처

전국 T. 061-371-1233
F. 062-971-4896
M. 010-3484-2886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www.kcmt.co.kr

전주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연탄 5,000장 나눔 봉사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원 30여명 참석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마음 전달



(사진 = 전주지역건축사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는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전주 지역건축사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 5,000장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최근 건축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축사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전문가 단체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연탄은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을 통해 기부되었으며, 회원들은 직접 배달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박광성 회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건축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건축사회, 치매환자에 '배회감지기' 기탁

6개 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되어 매년 이웃돕기 기부...



(사진 = 장수군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장수군건축사회(회장 심재준)가 300만원 상당의 '배회감지기'를 군에 기탁했다.

장수군건축사회는 현진·현창·다빈치·(주)누리종합·미르·라성 등 6개 건축사사무소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사회와 함

께 성장한다는 취지로 매년 이웃돕기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역의 건축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왔으며 이번 기탁 또한 겨울철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탁된 '배회감지기'는 실시간 위치추적, 안심존 설정, SOS 호출 기능 등을 갖춘 기기로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장비다.

장수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상 치매환자 돌봄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 지원은 가족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배회감지기'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치매환자 가정에 전달되며 가정환경과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장수군건축사회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배회감지기 기탁은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건축문화상 일반 분야 3점, 공공 분야 2점 선정

스테이호텔·철길마을 문화 플랫폼 금상 수상...



(사진 = 군산 스테이호텔 / 군산시 제공)

제7회 군산시 건축문화상에 일반 분야 3점, 공공 분야 2점 등 5점의 우수건축물이 선정됐다.

군산시 건축문화상은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물로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위해 2011년 도부터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일반 분야 5점, 공공 분야 3점 등 8점이 접수됐으며, 일반 분야 금상은 성산면 소재 '군산 스테이호텔(예식장)', 은상은 수송동 '노블 한방병원', 동상은 내흥동 '부연집_긴_처마집'을 선정했다.

공공 분야는 금상에 경암동 소재 '철길마을 문화 플랫폼', 은상은 개정면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를 선정했다.

고광룡 시 건축경관과장은 "건축물은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도시의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서 "올해 건축문화상 시상을 통해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노후 도시계획 규제 개선해 원도심 활성화 유도...



(사진 = 전주시청 제공)

전북 전주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노후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해 역사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도로 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역사도심 구역에서는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최대 3층 또는 도로 폭만큼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인근 기준을 적용해 건축물 높이를 8m(2층) 이하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 건폐율·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건축선·건축물 형태 규제 정비 등 개별 법령 특례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시는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2018년 전주객사를 중심으로 원도심 약 151만㎡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문화유산 관리 기준 정비에 따라 확립적 규제에서 벗어나 문화유산 중심의 선택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역사문화유산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자율성을 높여 노후 원도심의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도심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7명 (2025. 12. 12. 기준)

• 퇴회

- 방성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탐

• 변경(소재지)

- 문민호 건축사 / 로스톤 건축사사무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3, 1층
- 김종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21, 210호
- 반종성 건축사 / 스타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3길 18, 3층 302호
- 최현정 건축사 / 온고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3길 3-6, 1층 101호
- 권영욱 건축사 / 영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4길 15-1, 3층
- 김관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토마스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96-1, 1층

• 변경(사무소명)

- 최형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일 → 건축사사무소 아르카 스튜디오

• 결혼

- 오항근 건축사 / 우림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5년 11월 22일(토)
- 박진주 건축사 / 현창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5년 11월 22일(토)

• 부고

- 박백순 건축사 / 짓다101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5년 11월 11일(화)
- 곽영석 건축사 / 광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5년 11월 11일(화)
- 이영교 건축사 / (유)조형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2025년 11월 14일(금)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성, 임현정, 옥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해순, 오선화, 윤마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 ~ 6 F. 062)528-0026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탈 주택 - 공동체를 설계하는 건축

야마모토 리켄, 나카 도시하루 / 안그라픽스 / 2025. 02. 28.

책의 제목인 「탈주택」을 처음 마주했을 때, '탈주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낯선 울림이 오래 남았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는 주거의 형태인 한 가구가 한 채의 집을 점유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구조가 과연 당연한 것인지 되묻게 만든다. '집'이라는 단어가 안락함과 안정의 상징이 되어버린 시대에, 저자들은 오히려 그 익숙함을 해체하며 건축이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 책은 단순한 주거론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본질을 재해석하는 시도다.

1부에서 야마모토 리켄은 '시킴(鬩)', 즉 문턱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 그는 시킴을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내부와 외부가 이어지는 관계의 틈으로 본다. 과거 사랑방이 가족이 아닌 외부인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듯, 시킴은 주택 속에 존재하는 공적 공간이자 열린 마음의 상징이다. 오늘날 주택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완벽하게 닫혀버렸지만,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야마모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단순한 사회적 단절이 아니라, 건축의 구조적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설계한 판교하우징, 강남하우징 등은 이 개념이 실제로 구현된 대표적인 예다. 각각의 주택은 벽과 창, 마당, 골목길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이웃과의 소통이 가능한 '틈'을 만든다. 그 틈은 곧 시킴의 실체이며, 건축적 장치가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순간을 보여준다.

2부에서 나카 도시하루는 이 개념을 한층 더 확장한다. 그는 '공동체와 경제가 연결된 구조로서의 주거'를 제안하며, 주택을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생태계와 상호 작용하는 장으로 바라본다. 나카는 "주택이 경제로부터 분리된 한, 진정한 공동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주택은 단순히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살고 일하며 관계를 맺는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건축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읽는 내내 나는 현대 도시 속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높이 쌓인 아파트 단지 속에서 서로의 얼굴조차 모르는 현실,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일조차 낯설어진 풍경. 그 속에서 '시킴'은 단순한 건축 개념을 넘어, 단절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은유적 공간으로 다가왔다. 문턱을 넘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관계로의 진입이며, 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책을 덮고 난 뒤, 나는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나에게 좋은 집이란 이제 더 이상 크기나 형태로 정의되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계가 머물 수 있는 틈을 품은 공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거의 형태일 것이다. 앞으로의 설계 과정에서도 나는 시킴처럼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



되는 공간을 상상하고 싶다. 언젠가 내가 만드는 건축이 누군가에게 '닫힌 집'이 아니라 '열린 관계의 장소'로 기억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공간을 설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뿐 아니라, 공동체와 관계의 구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은 영감을 받을 것이다. 또한 사회의 단절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이 책은 의미 있는 통찰을 줄 것이다. '주택'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구조'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 책은, 건축을 삶의 철학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따뜻한 질문이 담긴 책이었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과



NTT Pavilion
(Lead Designer Fumiaki Hatakeyama)

일본 오사카 간사이엑스포
2025년 7월 3일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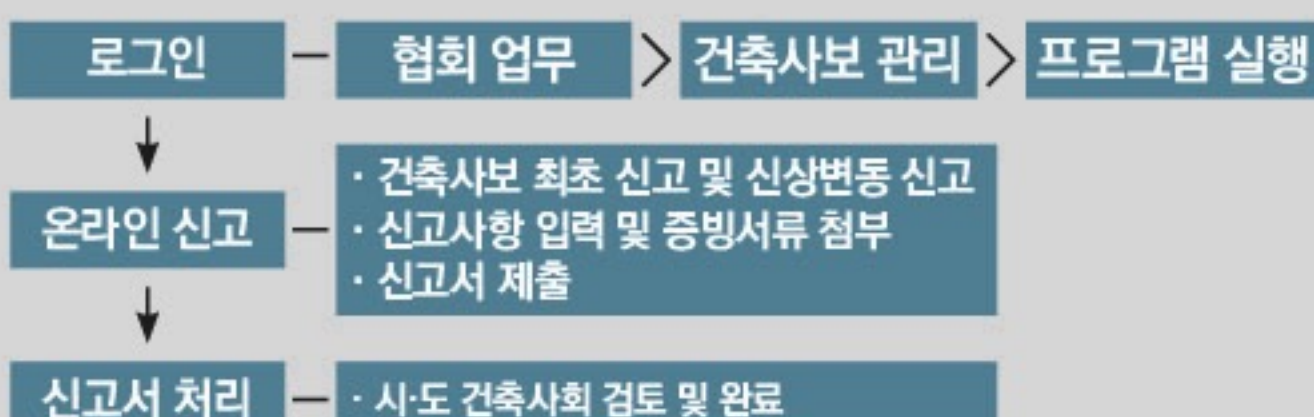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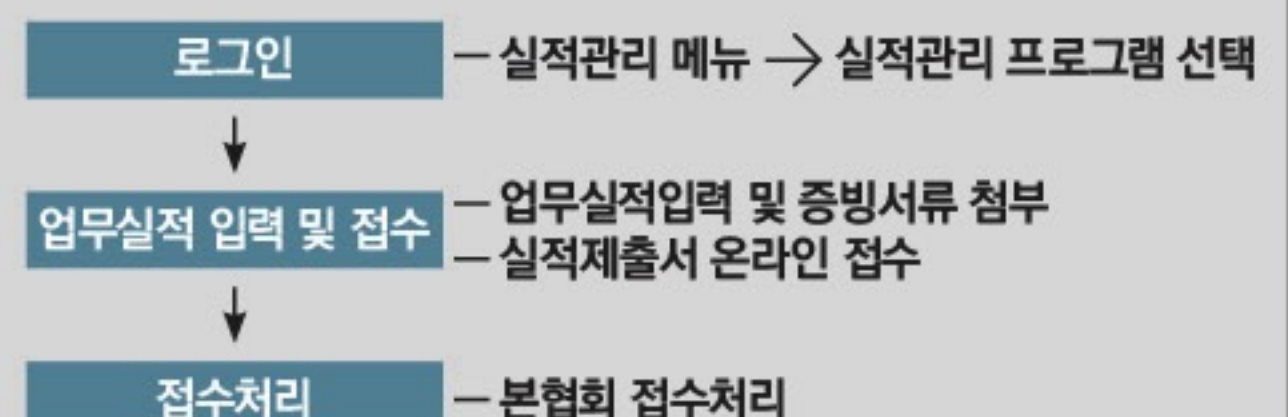
건축사보 신고 · 건축사 업무실적관리 온라인 신고 안내

업무 편의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그동안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되던
건축사보 신고·건축사 업무실적관리 업무를 2025. 12. 15.(월)부터 오프라인 신고와
병행 운영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보 온라인 신고 프로세스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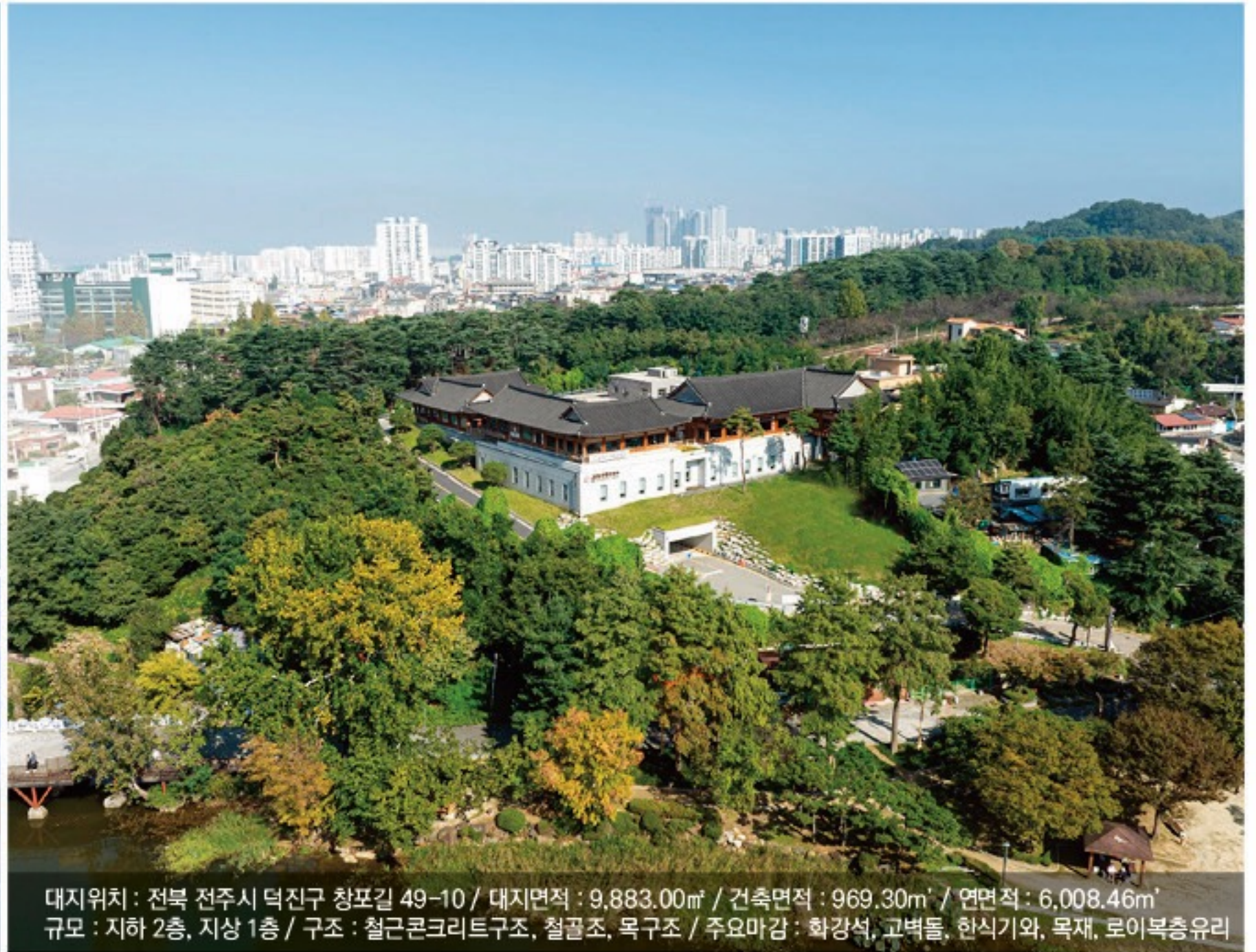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전북 회원 수상작만 표기) ※ 자세한 내용은 <http://www.jbaf.or.kr/> 참조

- ◎ **시상목적** :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건축문화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함.
- ◎ **공모대상** : 사용승인 부문 - 공공 분야(건축주 : 공공기관)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
- 민간 분야(건축주 : 개인 등) : 사용승인 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 3개 분야(① 주거(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② 비주거(주거용 이외) ③ 한옥(한옥구조 건축물))
- 공공·민간 분야(건축주 : 공공기관, 개인 등) : 사용승인 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로 조경 분야

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설계자 : 이길한 건축사 /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는 지역의 지식·문화 교류를 선도하는 열린 플랫폼으로서, 학술·산업·문화가 융합되는 새로운 중심 공간을 지향한다. 캠퍼스의 역사성과 주변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전북대학교의 상징성과 미래지향적 정체성을 동시에 구현한다. 개방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공간 구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설계, 그리고 유연한 프로그램 대응성을 통해 국내외 연구·산업·문화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건축은 단순한 컨벤션 시설을 넘어, 사람과 지식, 그리고 지역이 만나는 공간적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49-10 / 대지면적 : 9,883.00㎡ / 건축면적 : 969.30㎡ / 연면적 : 6,008.46㎡
규모 : 지하 2층, 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목구조 / 주요마감 : 화강석, 고벽돌, 한식기와, 목재, 로이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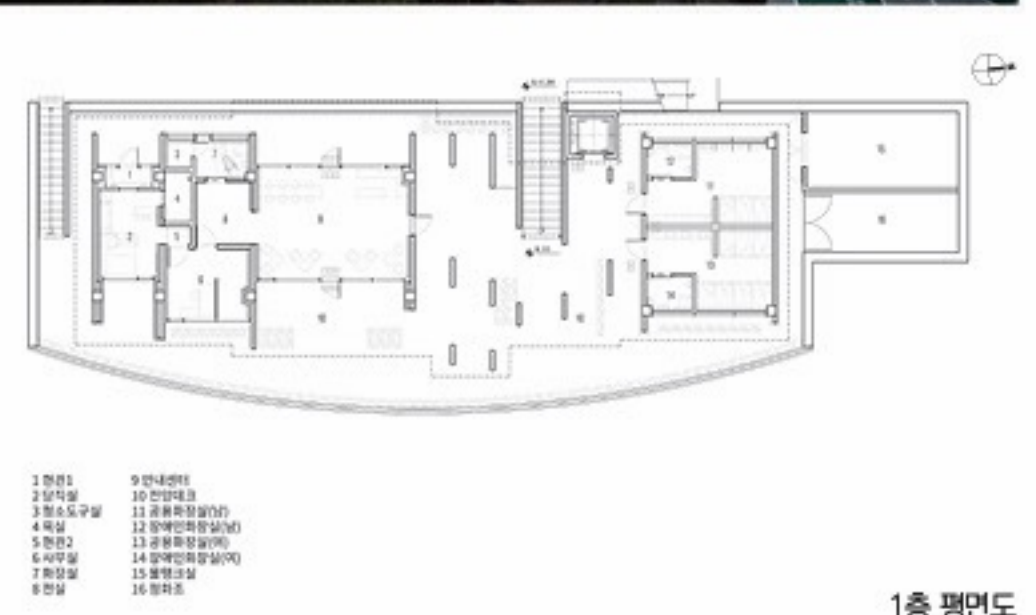


금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정령치 하늘 전망대’

설계자 : 채가을 건축사 / 가을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정령치로 1523 / 대지면적 : 8,919㎡ / 건축면적 : 397.27㎡ / 연면적 : 179.32㎡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T10 메쉬물탈마감 위 지정도장 뿔칠



1층 평면도

- ◎ **응모자격** : 공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 **접수기간** : 2025. 10. 27.(월) ~ 10. 28.(화), 09:00 ~ 18:00
- ◎ **심사 및 수상작 발표** : 2025. 11. 3.(월) ~ 11. 5.(수)
- ◎ **수상작 시상** : 2025. 11. 18.(화)
- ◎ **작품전시** : 2025. 11. 18.(화) ~ 11.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
- ◎ **수여 내용** : 설계자 및 시공자 ⇒ 상장 / 건축주 ⇒ 부착용 기념동판

◎ **심사위원** : 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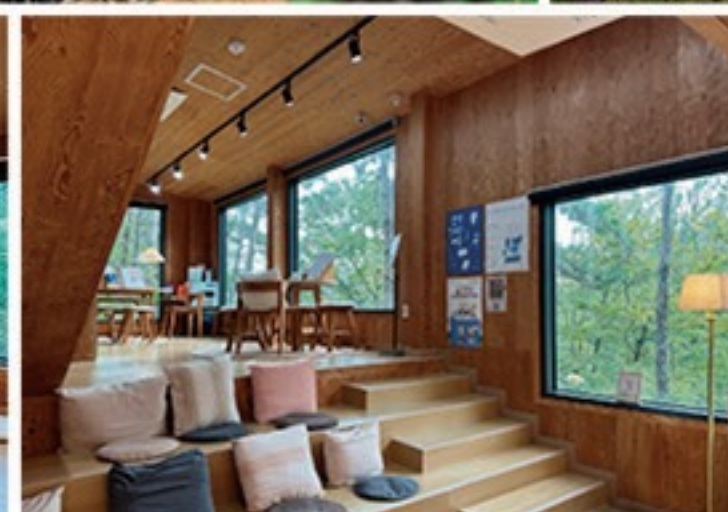
구 분	성 명	구 분	성 명
총괄건축가	김준영	전북건축사회 건축사	김동균
군산대학교 교수	최정민	전북건축사회 건축사	신태용
원광대학교 교수	노준석	전북특별자치도 전문가	안수한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김일중	전북특별자치도 전문가	황대연

은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설계자 : 육광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채담



대지위치 : 전북 전주 완산구 평화5길 36-46 / 대지면적 : 10,000㎡ / 건축면적 : 58.35㎡ / 연면적 : 58.35㎡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가설건축물(도서관)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주요 마감 : 시타싱글마감



동상(사용승인 부문 공공 분야) ‘임실생태누리’

설계자 : 안규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안



대지위치 :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654-1 / 대지면적 : 7,795.00㎡ / 건축면적 : 885.08㎡
연면적 : 862.53㎡ / 건폐율 : 11.06% / 용적률 : 11.35%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